

# 花園莊東地甲骨文的 文例 考察

—卜辭記錄의 形式을 中心으로

申永子\*

## <目 次>

1. 서론
2. 花園莊東地甲骨文的 간략 소개
3. 前辭의 유형 및 H3卜辭의 前辭 특징
  - 1) 前辭 유형에 대한 연구 현황
  - 2) H3卜辭의 前辭 특징
4. 占辭의 常用
5. 用辭의 常用
6. 결론

## 1. 서론

商代人들의 占卜과정에는 일정한 절차가 있고, 卜辭를 쓰고 새기는 데에도 고정적인 격식이나 체제가 있었다. 즉 언제, 누가, 무슨 내용으로 묻고 그것의 吉凶을 판단해 결과가 어떠했는지 등의 순서로 기록하였다. 이러한 구성 체제를 前辭, 命辭, 占辭, 驗辭라고 한다. 위와 같은 형식은 동시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4가지 형식이 완벽하게 기록되는 경우는 드물고 몇 가지는

\* 高麗大學敎 中國學研究所 研究敎授

- 1) 前辭: 점친 날짜와 점을 쳐 묻는 眞人의 이름과 장소 등이 기록되어 있다.(敍辭라고도 한다).  
命辭: 점을 쳐 물어야 하는 핵심 내용이다. (眞辭라고도 한다)  
占辭: 점을 쳐 얻은 卜兆를 보고 吉凶을 판단한 내용이다.  
驗辭: 점복 결과가 占辭대로 실현되었는지의 여부를 밝힌 부분이다.

생략된다.<sup>2)</sup> 이 4단계 외에도 卜兆 옆에 卜辭를 새길 때 종종 用辭, 吉辭, 告辭, 御辭, 兆辭 등 부대 요소인 兆語 부분이 있기도 하다.

花東甲骨文<sup>3)</sup>의 卜辭를 기록하는 기본적인 형식은 前辭, 命辭, 占辭, 驗辭, 用辭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王卜辭와 같다. 그러나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前辭부분에서 干支 중 地支가 생략된 경우나, 干支 다음에 時間詞가 오는 경우, 干支 다음에 場所가 있는 경우 등 H3卜辭<sup>4)</sup>의 특징이 나타난다.

命辭부분은 점을 치는 주요 내용으로 王卜辭에서는 모두 王室에 관한 事案이지만 H3卜辭는 모두가 '子族에 관한 事案으로 대부분 제사, 사냥, 기후, 질병 등에 관한 내용이 많고 王卜辭에 비해 전쟁에 관한 내용이 매우 적다.<sup>5)</sup>

占辭부분은 占卜의 주체자가 卜兆를 보고 길흉을 판단하는 부분으로 王卜辭에서는 왕이 주체가 되어 '王固曰' 혹은 '王曰'이지만, H3卜辭에서는 모두가 '子占曰' 혹은 '子曰'로 되어 있어 王卜辭와는 다르다.

驗辭는 占卜결과가 占辭대로 실현되었는지의 여부를 밝힌 부분으로 내용만 다를 뿐 그 체제는 王卜辭와 똑같다.

用辭는 卜兆 옆에 卜辭를 새길 때 用辭 등의 부대 요소를 새겨 卜辭의 실행 여부나 採納 여부 등을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H3卜辭에는 用辭의 쓰임이 많았고, 주로 用, 不用을 사용하여 採納 여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用자의 쓰임이 더 많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구성 체제를 갖춘 卜辭의 기록 형식 중 花東甲骨文的 특징이 부각되는 前辭, 占辭, 用辭 부분을 위주로 王卜辭와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卜辭의 기록 형식과 생략 현상은 12가지가 있다. 吳浩坤·潘悠, 梁東淑 譯, 《中國甲骨學史》, 2002, pp.149-152.

3) 花園莊東地甲骨文을 花東甲骨文으로 略稱한다.

4) 花東甲骨文이 발굴된 坑이 H3이고, 刻辭가 있는 갑골을 H3卜辭라고 칭한다.

5) 申永子, 《殷墟 花園莊東地甲骨文 研究》, 2004, pp.200-216.

## 2. 花園莊東地甲骨文的 簡略 소개

花東甲骨文은 1991년 가을 殷墟博物館에서 安鋼大道에 이르는 도로 보수 과정에서 1,583편의 갑골편이 발견되었다. 이곳은 花園莊에서 동쪽으로 백여 미터, 은허박물관에서 북쪽으로 약 4백여 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H3坑에서 발굴되었다. 그래서 '91花東H3甲骨文', '花東H3甲骨文', '花東甲骨文', 이라고 약칭하기도 하며, 刻辭가 있는 갑골은 'H3子卜辭' 또는 'H3卜辭'라고 칭한다. 花東甲骨文은 전혀 훼손되지 않는 완전한 형태의 갑골이 전체 80%가 넘고 문자가 있는 甲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sup>6)</sup>

花東甲骨文은 占卜의 主體가 왕이 아닌 '子'이다. 그는 상당한 규모의 독립적인 占卜機關을 가지고 있으며 占卜의 재료인 귀갑을 외지로부터 공납을 받을 정도의 권력이 상당한 자이며, 商왕실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子氏 성을 가진 子族의 首長으로 추정된다.<sup>7)</sup> 또한 王卜辭에서는 占卜의 主體인 王이 직접 卜兆를 보고 길흉을 판단한 占辭는 모두 '王[固]曰'로 시작된다. 그러나 花東甲骨文에서는 '王[固]曰'의 용어는 단 한편도 없고 모두 '子占曰', 혹은 '子曰'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非王卜辭'라고 칭하며 갑골문의 연구 뿐 아니라 당시 사회구조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시기는 殷墟文化 제1기, 즉 武丁시대 초기에 속하며 이 시기는 甲骨史上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非王卜辭에 속한 花東甲骨文에는 대략 7,80여명의 人名이 출현한다. 그들은 대부분 武丁시대의 賓組, 自組, 子組, 非王無名組卜辭 등에서 보여지는 인물들이다.<sup>8)</sup> 이들에 대한 연구는 花東甲骨文의 제작 년대, 商王室 귀족들과의 교류, 子族 집단의 구성 등 商代 武丁 初期 文化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내용은 제사에 관한 것이 가장 많고, 제사의 대상은 祖乙, 祖甲 등이었고, 여성조상으로는 妣庚, 妣丁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王卜辭에서도 제사의 대상이 되었던

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工作隊, 〈1991年安陽花園莊東地, 南地發掘簡報〉, 1993, pp.492-493.

7) 현재 학계에서는 '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8) 申永子, 〈殷墟 花園莊東地甲骨文的 時期〉, 2004, p.171.

인물들이다. 제사의 희생물 또한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어 당시의 제사상황을 엿볼 수 있다. 그 다음이 사냥이며, 기후, 질병, 정벌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정벌에 관한 내용이 가장 적는데 이는 H3卜辭만의 특징이기도 하다.

학술적 가치는 商代의 子族집단의 존재가 확인됨으로서 商代 귀족사회의 면모를 엿 볼 수 있고, 왕실의 상황과는 다른 구성원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또한 그동안 갑골문 分期斷代의 표준으로 삼았던 字形에 대한 기존의 이론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갑골문의 分期斷代 연구<sup>9)</sup>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아울러 商代 王卜辭 및 기타 非王卜辭 등과의 비교 고찰은 商王室 이외의 귀족 집단의 구조와 생활상을 엿볼 수 있고 商代 사회 구조의 근간인 家族(宗族)의 구성 형태를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자료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 3. 前辭의 유형 및 H3卜辭의 前辭 특징

#### 1) 前辭 유형에 대한 연구 현황

前辭는 敍辭 또는 述辭라고도 칭한다. 卜辭를 기록하는 네 가지 형식 중 卜辭의 맨 앞에서 점을 치는 날짜와 시간, 점을 치는 사람인 貞人, 점을 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前辭를 새길 때는 한 가지 형식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이 매우 다양하다. 기존의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王卜辭의 前辭형식에는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학자와 31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학자가 있다. 張秉權은 1)干支卜, 某貞, 2)干支卜, 某(貞생략), 3)干支卜, 4)干支卜, 貞, 5)貞, 6)干支卜, 王, 7) 干支卜, 某貞. 曰등 크게 7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였다.<sup>10)</sup> 李瑾은 31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1)干支 2)貞 3)干支卜 4)干支

9) 申永子, 〈花園莊東地甲骨文的 干支字를 통한 갑골 分期說 再考察〉, 2005, pp.238-243.

10) 張秉權, 〈甲骨文與甲骨學〉, 1988, p.156.

貞 5)干支卜, 貞 6)干支卜, 在某貞 7)干支卜, 在某卜 8)干支, 某 9)干支卜, 某貞 10)干支, 某卜, 貞 11)干支卜, 某 12)干支, 某卜 13)干支卜, 某卜 14)干支卜, 在某, 某貞 15)干支卜, 某, 在某貞 16)干支, 某貞 17)干支貞, 某 18)干支, 某卜, 在某, 某貞 19)干支卜, 某貞, 在某 20)干支某卜貞, 在某 21)干支卜, 某貞, 在某卜 22)貞, 在某卜 23)干支卜, 某, 某貞 24)干支卜, 某貞, 某卜 25)干支, 某卜 26)干支卜貞, 在某卜 27)干支貞, 在某卜 28)某卜 29)——干支卜 30)干支貞, 某 31)干支貞, 某貞 등이다.<sup>11)</sup> 이 중 3가지 유형 즉 9)干支卜, 某貞, 14)干支卜, 在某, 某貞, 15)干支卜, 某, 在某貞이 대표적이며 나머지는 이 3가지 유형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하였다.<sup>12)</sup> 그는 卜辭의 정확한 해독을 위해서는 前辭의 체계적인 분류가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H3卜辭의 前辭형식은 16가지 유형과 2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花東前言》에서는 1)干支卜, 2)干支, 夕卜, 3)干支, 夕, 4)干夕卜, 5)干支, 貞, 6)干支卜, 某貞, 7)干支, 某卜, 8)干支卜, 貞, 9)干卜, 貞, 10)某貞, 11)貞, 12)干支卜, 在某, 13)干卜, 在某, 14)干支, 15)干卜, 16)天干 등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sup>13)</sup> 또한 姚萱은 위 16가지 유형에다 다시 1)干支卜, 在某, 貞, 2)在某卜, 3)干支, 某, 在某, 4)干支, 在某, 5)干支卜, 某, 6)夕 등 6가지 유형을 더 추가하였다.<sup>14)</sup> 그 중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干支卜’과 ‘干卜’이고, 그 다음이 ‘某貞’, ‘干支’이며 ‘干支卜某貞’, ‘干支某卜’이 가장 적었다.<sup>15)</sup> 이 중에서 ‘干卜在某’, ‘干卜’ 등은 天干 중에서 地支를 생략하는 유형들이고, ‘干支夕卜’, ‘干支夕(貞)’ 등은 시간사를 대동하는 유형이며, ‘干支卜在某’, ‘干卜在某’ 등은 장소를 나타내는 유형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이 王卜辭에서는 아주 드물다. 또한 王卜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干支卜某貞’의 유형은 매우 드물게 보이는 등 H3卜辭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나타난다. 본장에서는 위 세 가지 특징을 王卜辭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1) 李瑾, 《卜辭前辭辭序省變形式統計》, 1982, pp.81-86.

12) 李瑾, 《卜辭前辭辭序省變形式統計》, 1982, p.91.

13)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殷墟花園莊東地甲骨》, 2003, pp.20-21.

14) 姚萱,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的初步研究》, 2005, pp.45-50.

15) 姚萱,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的初步研究》, 2005, p.46.

## 2) H3卜辭의 前辭 특징

### (1) 干支 중 地支가 생략된 경우

前辭 형식에서 단지 天干만 있고 地支가 생략된 경우이다(干卜). 王卜辭에서도 地支를 기록하지 않는 예들은 가끔 보인다.

〈王卜辭〉

[例1] 己卜, 貞 : 勿酉彡癸. (賓組) 《丙》 57(2)

己일에 짐을 치고 묻습니다. 癸에게 酉彡祭를 지내지 말까요?

[例2] [辛]卜, 出貞 : 今夕亡禍. (出組) 《續》 3.35.4

辛일에 짐을 치고 出이 묻습니다. 오늘 저녁에 재앙이 없을까요?

위의 [例2] 出組卜辭의 例에서도 ‘辛’과 ‘卜’ 사이에 地支의 자리가 비어 있다.<sup>16)</sup> 이렇게 사이가 벌어진 것은 卜辭에 地支를 새기지 않는 漏刻으로 보여진다.

〈H3卜辭〉

[例3] 庚卜, 在 麓 : 東五豕又鬯二用, 至 卣 妣庚. 二 (H3:113+1518)

庚일에 짐을 칩니다. 麓지역에서, 5마리 수돼지와 술 2통을 사용하여 妣庚에게 至祭와 卣祭를 드릴까요? 두 번 물었다.

[例4] 癸卜, 貞 : 子耳鳴無 咎. (H3:196+197)

癸일에 짐을 치고 묻습니다. 子의 귀가 울리는 병이 있는데 재앙이 없을까요?

위 [例3]의 圖版을 살펴보면 ‘庚’과 ‘卜’ 사이에는 빈틈이 없다. 즉 그 다음 글자가 곧바로 이어져 漏刻한 흔적이 없다. 다른 例에서도 마찬가지로 ‘天干’과 ‘卜’ 字 사이가 밀착되어 있어 王卜辭에서처럼 漏刻한 것이 아니라 地支의 생략이 일반적이었음을 보여준다. H3卜辭에는 이처럼 地支가 생략된 前辭의 수량이 비교적 많은데 이는 당시 H3卜辭의 占卜者가 卜辭를 새기는 관례였음을 알 수 있다.

16) 劉一曼·曹定云, 〈殷虛花園莊東地甲骨卜辭選譯與初步研究〉, 1999, p.292.

(2) 干支 다음에 時間詞가 오는 경우

H3卜辭의 前辭 유형에서 干支 혹은 天干 뒤에 夕이나 昃<sup>17)</sup> 등의 時間詞가 있는 경우이다(干支+시간사[夕, 昃]+卜의 유형). 아래와 같이 1)干支夕卜, 干夕卜 2)干支夕 3)干支昃 4)夕(干支 省略)등 4가지 유형이 있다. 이러한 유형은 王卜辭에서도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많지는 않다. 주로 ‘干支夕卜’의 유형이고, ‘干支卜, 昃卜’의 유형은 아주 적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王卜辭〉

[例5] 丙午夕卜 : 又歲于父丁羊. (午組) 《合》22093  
 丙午일 저녁에 짐을 칩니다. 아버지 丁에게 양을 잡아 侑祭와 歲祭를 지낼까요?

[例6] 甲子夕卜 : 又祖乙一羌. 歲三宰 (歷組) 《合》32171  
 甲子일 저녁에 짐을 칩니다. 組乙에게 侑祭를 드리는데 羌人 한 사람과 歲祭를 드리는데 우리에서 기른 양 3마리를 받칠까요?

[例7] 丁□卜, 昃卜 : 翌日雨, 小采雨東(貞組) 《合》21013  
 丁□일에 짐을 칩니다. 해질 녘에 짐을 칩니다. 다음날 비가 올까요, 저녁 무렵에 동쪽에서 비가 올까요?

위의 [例7]에서 昃卜은 후에 補刻된 것으로 보인다. 圖版을 보면 이미 ‘丁□卜 : 翌日雨, 小采雨東’을 새긴 다음 옆에다 따로 昃卜을 새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丁일 당일에 占卜한 시간이 해질 무렵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H3卜辭〉

1) 干支夕卜, 干夕卜 유형의 例

[例8] 癸亥夕卜 : 日昃雨, 子占曰, 其昃雨. 用 (H3:661)  
 癸亥일 저녁에 짐을 칩니다. 낮에 비가 계속 내릴까요? 자가 점친 결과를 보고 길흉을 판단해 말했다. 비가 계속 내릴 것이다. 채용되었다.

17) 夕 : 日의 반대 개념으로 저녁을 의미함. 주로 해가 진 다음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간을 나타냄(于省吾, 《甲骨文字詁林》, 1996, p.1153.)

昃 :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사람의 그림자가 옆으로 기우는 모습으로 오늘날 오후 2시경을 의미함(趙誠, 《甲骨文簡明詞典》, 1988, p.261.) 본편에서는 ‘해질 무렵’으로 번역함.

[例9] 戊戌夕卜 : 罍(己)子豕豸禽. 子占曰 : 不三其一. 用. (H3:1199)  
 戊戌일 저녁에 짐을 칩니다. 다음날己일에子是 돼지를 罍하려는 데 잡을 수 있을까요? 子가 짐친 결과를 보고 吉흉을 판단해 말했다.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채용되었다.

[例10] 甲夕卜: 日不雨 (H3:793)  
 甲날 저녁에 짐을 칩니다. 낮에 비가 내리지 않을까요?

2) 干支夕 유형의 例

[例11] 乙亥夕: 歲祖乙黑牝一, 子祝. (H3:224)  
 乙亥일 저녁에 祖乙에게 歲祭를 드리는데 검은 암소 한 마리를 올릴 까요? 자가 축원을 드릴까요?

[例12] 甲戌夕: 酉彡伐一, 祖乙卯口 (H3:940)  
 甲戌일 저녁에酉彡祭와 伐祭를 한번드릴까요? 祖乙에게 卯祭를 드릴까요?

3) 干支昃 유형의 例

[例13] 辛酉昃 : 歲妣庚黑牝一, 子祝. 一 二 (H3:540)  
 辛酉일 저녁 무렵에 (짐을 칩니다). 妣庚에게 검은 암소 한 마리를 올려 歲祭를 드릴까요? 子가 축원을 할까요?

4) 夕 유형의 例

[例14] 夕 : 歲小宰罍妣庚. 一 (H3:130+1123)  
 저녁에 우리안에서 키운 작은 양을 올려 妣庚에게 다음날 歲祭를 드릴까요?

이상과 같이 H3卜辭에서 시간사를 대동한 유형은 1)干支夕卜, 2)干支夕, 干夕卜, 3)干支昃, 4)夕(干支 省略)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干支夕卜이나 干支昃에는 漏刻이나 補刻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 다음 글자가 곧바로 새겨져 있다. 이 중 干支夕卜이나 干夕卜의 형식이 많은데 이는 아마도 짐을 친 시간이 주로 저녁이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3) 干支 다음에 場所가 있는 경우

前辭 유형에서 ‘干支卜’ 혹은 ‘干卜’ 다음에 장소를 기록한 유형이 있다(干支卜, 在某, 혹은 干卜, 在某 유형). H3卜辭에는 이런 類의 前辭 형식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분 1)干支卜,在某, 2)干卜, 在某 등 2가지 유형으로 모두 卜者(점을 치는 사람의 이름)나 貞(占卜을 묻는 행위)이 생략되었다.

王卜辭의 경우 武丁시기의 다른 유형의 卜辭에서는 매우 드물고, 오히려 갑골문 제2기인 出組卜辭와 갑골문 제5기인 黃組卜辭에서는 자주 보인다.

예를 들면 :

〈王卜辭〉

- [例15] 丙子卜, 王在夾卜 (出組) 《合》 24239  
丙子일에 점을 칩니다. 왕이夾지역에서 점을 칩니다.
- [例16] 丙午卜, 在商貞 (黃組) 《合》 36501  
丙午일에 점을 칩니다. 商지역에서 묻습니다.
- [例17] 丁卯王卜, 在朱貞 (黃組) 《合》 36743  
丁卯일에 왕이 점을 칩니다. 朱지역에서 묻습니다.

黃組卜辭에서는 대부분이 위 [例16] 같이 ‘干支卜, 在某貞’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위 예[例17] 같이 ‘干支某卜, 在某貞’이라고 되어 있다. 즉 장소를 기록한 卜辭의 前辭에 卜者가 있거나 혹은 干支 뒤에 ‘貞’을 붙였다. 그러나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H3卜辭의 前辭에서는 卜者나 貞이 없고 場所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장소를 기록한 卜辭에는 貞이 없는데 이는 H3卜辭의 주체자인 ‘子’가 직접 점을 친 경우로 추측된다.

〈H3卜辭〉

1) 干支卜, 在某 유형 例

- [例18] 壬申卜, 在沓: 其卬于妣庚, 卣十宰, 十鬯. 用. 在麓 (H3:313)  
壬申일에 점을 칩니다. 沓지역에서: 妣庚에게 御祭를 드리는데 제  
사용 양  
10마리와 술 10통을 올릴까요? 채용되었다. 麓지방에서

- [例19] 戊午卜, 在罍: 子立于泉中□, 子占曰, 企鬯. (H3:985)  
戊午일에 점을 칩니다. 罍지역에서, 자는 泉中<sup>18)</sup>에 위치해 있을까요?

18) 卜辭에서는 주로 山麓의 麓으로 사냥터를 말한다.(趙誠, 《甲骨文簡牘辭典》, 1988, p.194.) 본편에서는 ‘가운데 있는 사냥터’로 풀이한다.

자가 점친 결과를 보고 길흉을 판단해 말했다.

2) 干卜, 在某 유형 例

[例20] 庚卜, 在 麓 : 東五羴用, 至 午 妣庚. (H3:113+1518)

庚일에 麓 지역에서 짐을 잡니다. 숯돼지 5마리를 올려 妣庚에게 至祭와 御祭를 드릴까요?

[例21] 丁卜, 在 馗 : 其東狩 (H3:126+1547)

丁일에 짐을 잡니다. 馗 지역에서, 동쪽에서 사냥을 할까요?

이와 같이 前辭의 유형을 살펴 본 바 H3卜辭에는 王卜辭와는 달리 地支가 생략된 경우, 시간사를 대동하는 경우, 장소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H3卜辭의 특징이 나타났다.

干支 중 天干이 생략된 예는 단 한편도 없고 모두 地支만 생략되었는데 이는 干支 중 天干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음을 알 수 있었다.

시간사를 대동하는 유형에는 1)干支夕卜, 干夕卜 2)干支夕 3)干支辰 4)夕(干支省略) 등 4가지 유형이 있으나 주로 1),2),4)의 유형이 많고 소량의 3)干支辰의 형식이 있는데 이는 짐을 친 시간이 오후 2시를 넘어 대부분 저녁시간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오늘날에도 제사는 저녁에 지내는 풍습이 있는 것으로 보아 商代의 제사 풍습이 지금까지 전해져 왔음을 알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의 형태는 주로 1)干支卜, 在某나 2)干卜, 在某의 형식이 많고 卜者나 貞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반면 王卜辭에서는 대부분 '干支卜, 在某貞', '干支某卜, 在某貞' 등의 유형으로 卜者나 貞이 새겨져 있다. 이것으로 볼 때 H3卜辭의 주체자인 '子'가 직접 짐을 친 경우로 추측된다.

#### 4. 占辭의 常用

占辭란 짐을 치고 난 다음 占卜의 主體者가 卜兆에 의거해 길흉을 판단한 내용을 말한다. 이는 占卜의 主體者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된다. 王卜辭에서는 '王固貞'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부 '王固卜貞'이나 '王貞'이라고도 하였다. H3

卜辭의 占辭도 대부분 ‘子占曰’이나 ‘子曰’<sup>19)</sup>등으로 되어 있다. 이는 H3卜辭의 主體者가 ‘子’임을 말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면서 동시에 非王卜辭에 속한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王卜辭〉

[例22] 癸巳王卜, 貞: 旬亡田犬(憂), 王固曰, 大吉, 在十月 《合》37953  
癸巳일에 왕이 짐을 치고 묻습니다. (앞으로) 열흘동안 재앙이 없을까요?  
왕이 점친 결과를 보고 길흉을 판단해 말했다. 크게 길하겠다. 10월에

[例23] □亥卜, 貞(師)貞: 王曰, 出(有)孕, 女力(嘉), 扶(扶)曰, 女力(嘉)  
《合》21071  
□亥일에 왕이 짐을 치고 貞(師)가 묻습니다. 왕은 점친 결과를 보고 말했다.  
아이를 잉태하겠으며 아들을 낳겠다. 扶가 결과를 보고 말했다.  
아들을 낳겠다.

〈H3卜辭〉

1) 子占曰의 例

[例24] 蕪心鹿. 子占曰: 其蕪  
(H3:52)

心지역에서 사슴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가 점친 결과를 보고 길흉을  
판단해 말했다. 만날 수 있을 것이다.

[例25] 己巳卜, 雨其至于夕, 子占曰: 其征終日, 用.  
(H3:333)

己巳일에 짐을 칩니다. 비가 계속 내릴까요? 자가 점친 결과를 보고  
길흉을 판단해 말했다. 비가 온종일 계속 내릴 것이다. 채용되었다.

[例26] 癸亥夕卜, 日征雨. 子占曰: 其征雨. 用  
(H3:661)

癸亥일 저녁에 짐을 칩니다. 낮에 비가 계속 내릴까요? 자가 점친 결과를  
보고 길흉을 판단해 말했다. 비가 계속 내릴 것이다. 채용되었다.

2) 子曰의 例

[例27] 甲夕卜: 日雨. 子曰: 其雨. 用. (H3:793)

19) 姚萱은 “曰”도 占辭의 유형으로 보며 이 세가지 유형외에도 ‘曰’이 생략된 형태의 占辭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姚萱,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的初步研究》, 2005, pp.50-55.)

甲날 저녁에 짐을 칩니다. 낮에 비가 내릴까요? 자가 점친 결과를 보고 길흉을 판단해 말했다. 비가 내릴 것이다. 채용되었다.

[例28] 己卯卜貞：龜不死。子曰：其死 (H3:486)

己卯일에 짐을 치고 묻습니다. 龜는 죽지 않을까요? 자가 점친 결과를 보고 길흉을 판단해 말했다. 죽을 것이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子曰'은 '子占曰'이 생략된 형식이다. 그러나 子占曰에 비해 수량이 적다. 自組卜辭에서도 10여 개의 占辭가 보이는데 '由占曰', '由曰', '扶曰' 등으로 쓰였다. 또한 子組卜辭에서도 자가 占辭한 것이 있으나 그 수량이 매우 적다.<sup>20)</sup>

H3卜辭에 占辭가 있고 그 형식이 王卜辭와 유사한 것으로 볼 때 H3卜辭의 主體者인 '子'는 당시 상당한 권력과 지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5. 用辭의 常用

卜兆 옆에 卜辭를 새길 때 종종 用辭, 吉辭, 告辭, 御辭, 兆辭 등 부대 요소인 兆語를 새겨 卜辭의 실행여부나 採納 여부 등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 중 用辭란 占卜의 실행 여부나 혹은 채용 여부를 기록한 것으로 用, 不用, 茲用, 茲不用, 茲毋用 등이 있다.<sup>21)</sup> 用辭는 占卜이 다 끝난 다음에 驗辭처럼 추후에 기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龜甲을 잘 보관하여야만 했다.

H3卜辭에서는 이러한 兆語 중에서 주로 用辭가 사용되었고 두 가지 용례가 나타난다. 하나는 用/不用의 쓰임이고, 또 하나는 𠄎(𠄎)/ 不𠄎(𠄎)<sup>22)</sup>의 쓰임이다.<sup>23)</sup>

20) 劉一曼·曹定云, 〈殷墟花園庄動地甲骨卜辭選釋與初步研究〉, 1999, p.293.

21) 吳浩坤·潘悠 著, 梁東淑 譯, 《中國甲骨學史》, 2002, pp.157-158.

22) 姚萱은 𠄎(𠄎)/ 不𠄎(𠄎)을 孚辭로 세분하였으나 본고에서는 用辭의 또 다른 用例로 본다.

23) 《花東·前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H3卜辭의 用辭에는 用/不用과 𠄎(𠄎)/ 不𠄎(𠄎) 등 두 가지가 있는데 '用'/'不用'이 많이 사용되었다. 어떤 때 用자는 卜兆 옆에서 보이는데 15(H3:53)의 圖版에는 卜辭가 없고 오로지 4군데 卜兆 옆에 用자만 새겨져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271(H3:793), 295(H:882)등에서

用辭는 이미 점을 친 卜辭를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用辭는 대부분 卜兆의 주변에 새겨져 있고 문례의 형식상 그 위치는 일반적으로 卜辭의 끝에 위치해 있거나, 命辭 혹은 占辭 뒤에 있기도 하다. 즉 그 유형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문장 맨 끝에 위치한 경우와 또 하나는 用辭 뒤에 또 다른 성분이 있는 경우이다. 예문을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用/不用의 例

王卜辭에서 用辭는 주로 茲用/ 不用의 용례가 많다. 그러나 不用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sup>24)</sup> 그러나 H3卜辭에서는 用/不用의 용례가 많으며, 卣(卣)/ 不卣(卣)의 용례도 수량이 적지만 나타난다. 예를 들면;

〈王卜辭〉

[例29] 丙子卜,貞 : 武丁丁(祊). 其牢. 茲用. 《合》 35812  
 丙子일에 점을 치고 묻습니다. 무정에게 우리에서 기른 제사용 소를 올려 丁祭를 지낼까요? 채용되었다.

[例30] 己未卜, 其又歲于雍己. 茲用. 十牢. (屯南: 3794 (歷無名間))  
 己未일에 점을 칩니다. 雍己에게 侑祭와 歲祭를 올릴까요? 채용되었다. 우리에서 기른 제사용 소 10마리.

〈H3卜辭〉

[例31] 癸丑卜 : 子福新鬯于祖甲. 用. (H3 : 1417)  
 癸丑일에 점을 칩니다. 子는 祖甲에게 새로운 술(鬯)을 올려 福祭를 드릴까요? 채용되었다.

[例32] 癸丑卜 : 𠄎二牢又牝于祖甲. 不用. (H3 : 1417)  
 癸丑일에 점을 칩니다. 우리에서 기른 제사용 소 2마리와 암소 한 마리를 올려 祖甲에게 올릴까요? 채용되지 않았다.

보여지는 것처럼 대부분 用자는 卜辭의 끝에 나타나는데 모두 命辭 혹은 占辭 뒤에 위치해 있다. 반면에 卣(卣)/ 不卣(卣)는 卜兆옆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단지 命辭 혹은 占辭 뒤에만 나타나고 있다. 87(H3:287+394)에 “其雨?不卣(卣)” 나 288(H33:873) “蕪狩? 子占曰: 不三[其]一, 卣(卣)”에서와 같이 卣(卣)/ 不卣(卣)의 의미는 用/不用과 유사하다.  
 24) 黃天樹, 〈殷墟王卜辭的分類與斷代〉, 1991, pp.333-341.

[例33] 甲申卜, 惠小歲<sup>改</sup>于且(祖)甲, 用, 一羊 (H3:662)  
 甲申일에 짐을 칩니다. 祖甲에게 <sup>改</sup>(25)하는 방법으로 小歲祭를 올릴까요?  
 채용되었다. 양 한 마리.

[例34] 辛巳卜: 于癸<sup>改</sup>甸牛<sup>26</sup>, 不用, 于甲<sup>改</sup> (H3:1463)  
 辛巳일에 짐을 칩니다. 癸(辛巳 3일 후가 癸未일이고, 癸未 다음날이 甲申  
 일임)일에 소 열 마리를 때려 죽일까요? 채용되지 않았다. 甲(甲申)일에  
 때려 죽였다.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H3卜辭에서도 用/不用은 2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하나는 用辭의 위치가 문장 끝에 놓이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用辭 뒤에 또 다른 성분이 있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用辭는 占卜의 행위가 끝난 다음에 그것의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占辭나 驗辭 뒤에 놓인다.

## 2) 甲(𠩺)/ 不甲(𠩺)의 예

[예35] 庚申卜, 子皿<sup>商</sup><sup>27</sup>, 日不雨, 甲(𠩺) (H3:287+394+1511)  
 庚申일에 짐을 칩니다. 子皿이 商지역에서 (출산을 하려는데) 낮에 비가  
 내리지 않을까요? 채택되었다.

[예36] 其雨, 不甲(𠩺) (H3:287+394+1511)

비가 올 것이다. 채택되지 않았다.

[예37] 乙未卜, 在<sup>𠩺</sup>, 丙[不雨], 子占曰, 不其雨, 甲(𠩺) (H3:30)

25)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양과 뱀의 모양이 합쳐진 글자이다. 즉 몽둥이로 뱀을 때려죽이는 用犧법<sup>25</sup>의 일종이다. (趙誠, 《甲骨文簡明詞典》, 1988, p.241.)

26) ‘于癸<sup>改</sup>甸牛’에서 癸는 干支일이다. 즉 짐을 친 날이 辛巳일이며 그 다음날이 壬午-癸未-甲申-乙酉일로 이어진다. 같은 組에 있는 다른 복사의 내용으로 볼 때 제사를 받는 대상이 祖乙이므로 제사는 乙酉일에 지낸다. 제사 2틀전인 癸未일에 제사 준비를 묻는 복사로 결국은 채용되지 않고 제사 하루전날인 甲申일에 <sup>改</sup>(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양과 뱀의 모양이다. 몽둥이로 때려죽이는 用犧법)한 방법으로 소 10마리를 죽여 제사를 준비한 내용이다.

27) 子皿<sup>商</sup>: 子皿은 여자의 人名으로 보고, 子皿이란 여자가 곧 출산을 하려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朱岐祥, 《殷墟花園莊東地甲骨校釋》, 2006:975) 그러나 商이 지금껏 인명, 지명 등으로만 쓰였을 뿐 動詞로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馬如森, 《殷墟 甲骨文引論》, 1993, p.406.)

乙未일에 점을 칩니다. ~~其~~지역에서, 병(丙申 혹은 丙午)일에 비가 오지 않을까요? 자가 점친 결과를 보고 길흉을 판단해 말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채택되었다.

[예38] 其雨, 不用 (H3:30)  
비가 올 것이다. 채용되지 않았다.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甲(12)/ 不甲(12)는 對貞卜辭이다. 卜辭는 대부분 긍정과 부정의 판단 여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긍정과 부정이 한조를 이루는 경향이 많다. H3卜辭에서의 甲(12)/ 不甲(12) 모두 8판에 10례에 불과하며 부정의 의미가 있는 ‘不甲(12)’가 있는 것은 단 한례에 불과하다.<sup>28)</sup> 또한 위 예문 [37], [예38]에서처럼 甲(12)/ 不用으로 對貞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H3卜辭에도 王卜辭의 경우와 같이 用辭를 상용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주로 ‘用/不用’유형과 ‘甲(12)/ 不甲(12)’유형 두 가지가 상용되었고, 그 중에서 ‘用/不用’의 유형이 常用되었다. 특히 不用이나 不甲(12)등 부정적인 用辭는 적게 사용되었고 ‘用’이 常用되었다. 반면 王卜辭에서의 用辭는 주로 ‘茲用’이 常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用辭는 占卜행위가 끝난 다음에 追後에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점복한 귀갑 등을 소중히 보관할 수 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 6. 결론

이상과 같이 花東甲骨文的 卜辭記錄 形式에 대해 王卜辭와 비교하여 살펴 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H3卜辭의 前辭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모두 22가지의 유형 중 ‘干卜, 在某, ‘干卜’ 등의 유형은 天干 중에서 地支를 생략하는 유형이고, 시간사를 대동하

28) 姚萱은 甲(12)/ 不甲(12)를 ‘孚/不孚’로 풀이하고 孚辭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고에서는 用辭의 用例 로 본다. (姚萱,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的初步研究》, 2005, pp.72-73.)

는 ‘干支夕卜’, ‘干支戾’ 등의 유형, 장소를 나타내는 ‘干支卜, 在某’, ‘干卜, 在某’ 등의 유형은 王卜辭에서는 없거나 아주 적게 나타난다. 또한 王卜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干支卜, 某貞’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등 H3卜辭만의 독특한 前辭특징을 보인다.

干支字 중에서는 地支만 생략된 형태만이 있을 뿐인데 이로 볼 때 干支 중 天干이 중심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干支 다음에 時間詞를 대동하는 경우 그 時間詞는 대부분 ‘夕’이었고, 그 외 ‘戾’를 사용하였다. 이로 볼 때 당시 제사는 밤에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다. 장소를 기록한 卜辭의 경우 王卜辭와는 달리 卜者나 貞이 없는데 이는 H3卜辭의 주체자인 ‘子’가 직접 점을 친 경우로 추측된다.

둘째, ‘子占曰’, ‘子曰’ 등의 占辭가 常用되었다. 王卜辭에서의 占辭는 모두 ‘王固曰’이다. 占辭는 점을 치는 主體者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으로서 王卜辭에서는 모두 王이 주체였으므로 占辭를 ‘王固曰’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H3卜辭에는 ‘王固曰’이 단 한편도 없고 모두 ‘子占曰’ 혹은 ‘子曰’이다. 이로 볼 때 H3卜辭는 王卜辭와는 다른 非王卜辭에 속함을 알 수 있고, 花東甲骨文의 주체자인 ‘子’는 상당한 권력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卜兆 옆에 부대 요소인 用辭를 새겨 占卜의 採納與否나 使用여부를 판단하는 기록이 있다. 王卜辭에서의 用辭로는 주로 ‘茲用’이 常用되었다. 그러나 H3卜辭에서는 ‘用’/‘不用’과 ‘用(卜)’/‘不用(卜)’ 등 두 가지를 썼다. 이 중에서 ‘用’을 더 普遍的으로 사용하였고, 不用과 ‘不用(卜)’의 사용은 매우 적었다. 이것으로 볼 때 商代에는 占卜을 한 다음에도 그 龜甲을 소중하게 보관하였고, 追後에 다시 기록하는 등의 작업을 계속했음을 알 수 있었다.

《參考文獻》

- 于省吾,《甲骨文字詁林》,北京:中華書局,1996.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殷墟花園莊東地甲骨》,雲南:雲南人民出版社,2003.
- 王宇信·楊升南,《甲骨學一百年》,北京:社會科學院文獻出版社,1990.
- 申永子,《殷墟 花園莊東地甲骨文 研究》,서울: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2004.
- 申永子,《殷墟 花園莊東地甲骨文的 時期》,서울:중국문화연구 제4권,2004.
- 朱岐祥,《殷墟花園莊東地甲骨校釋》,臺中,東海大學中文系語言文字研究室,2006.
- 李瑾,《卜辭前辭語序省變形式統計》,重慶,重慶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82.
- 李旻始,《甲骨文例研究》,台灣:台灣古籍出版有限公司,2003.
- 姚萱,《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的初步研究》,北京:首都師範大學 博士論文,2005.
- 馬如森,《殷墟甲骨文引論》,北京師範大學出版社,1993.
- 徐中舒,《甲骨文字典》,四川:四川辭書出版社,1989.
- 郭沫若 主編,《甲骨文合集》,北京:中華書局,1980.
- 梁東淑譯,吳浩坤·潘悠 著,《中國甲骨學史》,서울:東文選,2002.
- 梁東淑,《甲骨文解讀》,서울:月刊書藝文人堂,2005.
- 張桂光,〈花園莊東地卜甲刻辭行款略說〉,《花園莊東地甲骨論叢》,台灣:聖環圖書股份有限公司,2006.
- 張秉權,《甲骨文與甲骨學》,台灣:三軍大學印製廠,1988.
- 陳夢家,《殷墟卜辭綜述》,北京:中華書局,1988.
- 黃天樹,〈殷墟王卜辭的分類與斷代〉,《關於無名類等的用辭》,臺北:文津出版社,1991.
- 趙誠,《甲骨文簡明辭典》,北京:中華書局,1988.
- 劉一曼·曹定云,〈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選譯與初步研究〉,《考古學報》第3期,北京:1999.
- 劉源,《試論殷墟花園莊東地卜辭的行款》,故宮博物院院刊,2005年 第1期,2005.

### 《中文提要》

通过考察甲骨文的文例，我们可以了解当时的写作习惯和商代初期文化。调查花东甲骨文的卜辞纪录的形式，我们找出与王卜辞相异的几个问题。

第一，H3卜辞的前辞总共有22种形式。其中，“干支夕卜”、“干支夕”、“干卜”、“干夕卜”、“干卜贞”、“干支贞”、“干支卜在某”、“干卜在某”的类型，在王卜辞中，有的没有出现，有的罕见。王卜辞中出现频率最多的“干支卜某贞”类型，H3卜辞里几乎不出现。这是H3卜辞的显著特征。干支字是前辞的主要部分。其中只省略地支的形态很多，从中我们可以看出：在干支中，以天干为中心。干支下面带同时间词时，大部分的时间词是“夕”字，余下的是“贞”字。这里我们可以推断当时祭祀一般在晚上举行。这种习惯一直沿用到现在。H3卜辞中，记录场所的卜辞里没有“卜者”和“贞”，这又与王卜辞不同。这可能是因为H3卜辞的主体者“子”为占卜者。

第二，常用“子占曰”，“子曰”等占辞。王卜辞的占辞都是“王固曰”，“王曰”。但H3卜辞都是“子占曰”，“子曰”。因此我们可以知道，花东甲骨文的主体者“子”具有相当的权利和地位。

第三，记录着在卜兆旁边刻附带因素的用辞来判断是否采纳占卜或使用余份。在王卜辞里的用辞主要常用“兹用”。在H3卜辞里，用“用/不用”和“𠄎(卜) / 不𠄎(卜)”等两种。其中更普遍使用用。由以可知，在商代，占卜后，先珍藏龟甲，事后再继续重新做记录工作。

**關鍵詞：**H3卜辞，花东甲骨文，卜辞记录形式，前辞，命辞，占辞，验辞，子占曰，用辞，文例，干支

이 논문은 2009년 11월 02일에 접수되어 2009년 12월 04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9년 12월 15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